

말씀과 기도 동상

# 매일 만나

2021. 12.

December. vol. 1

사무엘상 25장 ~ 31장, 고린도후서 1장 ~ 10장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12 십이월

## Monthly Plan

SUN	MON	TUE	WED	THU
			1	2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12

1

1 2 3 4

1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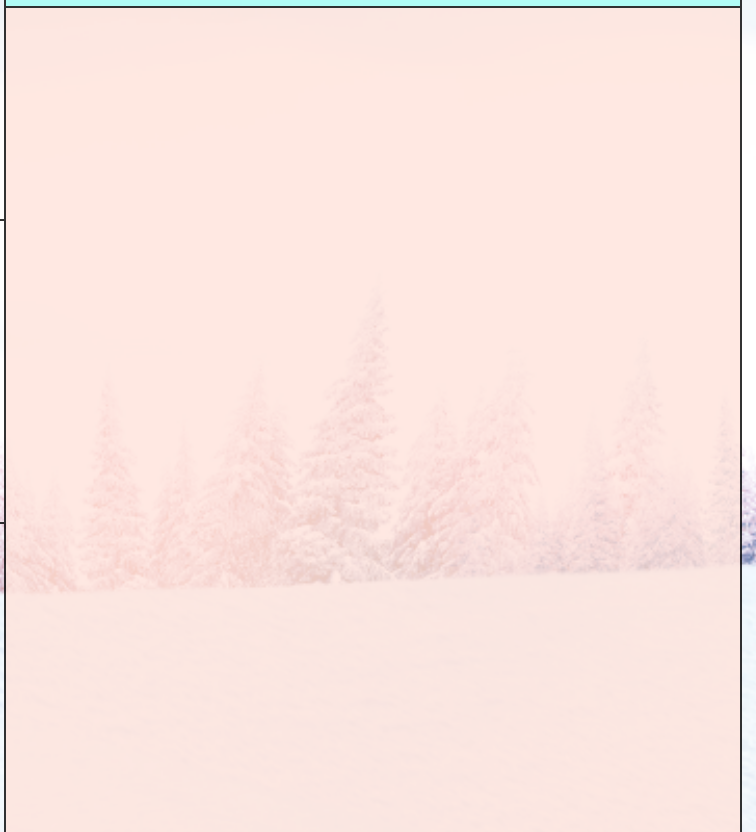
30 31

U	FRI	SAT
3		4
10		11
17		18
24		25

# Check List

- 
- 
- 
- 

인생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인내로 이루어져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자는  
 놀라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클라우드 폴 타파넬



행복하게 하는 복음

용서의 힘과 영향력  
*"Trumpy Reef."*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서도, 손에 쥘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배가 부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가졌는데도  
불행한 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손만 뻗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음에도  
금지된 그것에 대한 탐욕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조차 잃게 만듭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골3:5).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도 없고 복은 더욱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슈퍼 문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에서 보듯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가는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게 먹는 밥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그러나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먹은 음식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탐욕은 다양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오르고 싶은 자리, 누리고 싶은 영광  
또 이기고 싶은 욕망과 쓸데없는 자존심 등이  
우리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 - 성경 개관 -



*Holy Bible survey*

# 사무엘상

안광모 목사

## I. 소 개

이 책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 출범할 왕정 제도에 신학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여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는 다윗의 왕조가 뿌리 내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사무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 왕정이 설립된 과정과 그 왕정이 갖는 신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맞이했는지, 특히 이 과도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묘사한다.

## II. 역사적 정황

사무엘서는 주전 12세기 말부터 약 1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탄생한 사무엘은 적어도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삼상 7:2). 그러나 실제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5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삼상 2:18-21; 3:1-2; 8:1, 5; 12:2).

사무엘이 노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이었다(삼상 10:26).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사울은 그곳을 자신의 집권 중심지로 삼았다(삼상 15:34; 22:6; 23:19).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울은 주전 1050년쯤 왕으로 취임했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40년 통치 후인 주전 1010년경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고,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내전을 치른 후 아브넬의 중재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적은 블레셋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사무엘 때 다시 찾기도 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 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퇴치되었다. 그들은 엘리-사무엘-사울-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을 뿐 아니라 40년간 지배하기도 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의 국제 정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평온한 편이었다. 앓수르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급급하여 제국 형성이나 영토 확장에 관심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앓수르는 다윗이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국제 무대의 강자로 발돋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의 국제적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다윗은 통일왕국이 된 후 여부스 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지형적으로는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천연요새를 얻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에 의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복군이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기도 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앓던 이를 빼낸 것과 같은 일이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 통치상의 수도로 삼은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그때 벌써 이스라엘의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 사이에 견제 혹은 경쟁 구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남북 화합에 기여했다.

뿐만아니라 다윗은 여러 지파 출신을 정부 관료로 두루 등용하여 정치적 능력을 드러냈고, 레위 지파를 성전에 등용하여 범민족적인 통일성을 추구했다.

### III. 신학적 주제들

#### (1) 왕권

사무엘서는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최초의 요청,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 왕권 수립, 첫 왕 사울의 비극적 통치, 그의 대를 이은 다윗 왕의 중앙 집권 체제, 다윗 왕과 그의 집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약속 그리고 다윗 왕권의 쇠퇴와 최후 등 책 전체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과 왕정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에게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범한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거룩한 왕권의 통치를 받아야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횡포를 막고, 열방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열방처럼' 된다는 것은 '열방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삼상 8:19-20)'이었다. 간단하고 순박한 바람으로 보이는 이들의 염원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들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간 왕의 군림을 선호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을 언약 과기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이 새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무엘은 왕에 대해 '취하는 자'라고 묘사했고, 세금, 징병 등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취할 것을 경고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무엘의 일생처럼 끊임없이 주는 것이었다.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세운 왕에게 끊임없이 바쳐야 한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의 근본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한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 (2) 선지자권

만일 왕정이 실행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정치를 하도록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왕이 '취하는 자'라면, 어떻게 그가 '지나치게 취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선지자 제도를 설계하셨고, 선지자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시키셨다.

그들의 권위에 대한 묘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초기 왕들과의 관계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누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또 누구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의 왕복을 벗김으로써 그의 폐위를 상징적으로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킹 메이커'인 동시에 폐위도 시키는 '킹 브레이커'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선지자들의 인준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했으며, 선지자의 인정이 없는 정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서자 정권에 불과했다.

## (3)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한나의 노래(삼상 2:1-10)와 다윗의 노래(삼하 22:1-23:7)는 사무엘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두 텍스트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수미쌍관 구조로, 사무엘서를 둘러싸는 외곽틀이며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다.

사무엘상의 한나의 노래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왕으로 추대되지만 교만했을 때는 폐위를 당하고, 사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메시아 왕을 준비시킴이 나타난다.

## IV. 사무엘상의 구조

사무엘상은 구성상 건축물이기보다 유기체에 가깝다. 역사와 문학, 그리고 신학이 서로 얽히고설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이 내러티브의 유기체적 특성이 사무엘상 구조 분석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 즉 사무엘서의 역사적 성격은 시간적 구분방식을, 문학적 특성은 문학적 단락 구분방식을, 그리고 신학적 특성은 신학적 주제에 따른 구분 방식을 잣대로 사용하게 해 준다.

## 1)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은 사무엘서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로 구분한다.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의 구분은 사울의 등극 및 죽음의 기록과 일치하며 사무엘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사무엘상을 시대적으로 분석하면 아래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사무엘 시대(1-12장)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1-3장)  
엘리 시대의 종말(4-6장)  
사무엘 시대의 언약 갱신과 승리(7장)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즉위(8-12장)  
사울 시대(13-31장)  
사울의 통치(13-15장)  
다윗의 흥기(16-31장)

## 2) 문학적 구분 방식에 의한 구조분석

이번에는 문학적 구분 방식에 의한 구조 분석의 예를 살펴보자. 사무엘서는 단락 구분 표시로 인정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사무엘 사역요약(삼상7:15-17)이고,  
둘째는 사울의 통치 요약(삼상14:47-52)이고,  
셋째는 다윗의 통치 요약(삼하8:15-18)이고,  
넷째는 다윗의 관리(삼하20:23-26)다.

이 네 요약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서를 5등분한다. 그 외에 구분 표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무엘의 즉위, 사무엘의 죽음, 다윗의 세 번 기름 부음 받음,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감안하여 사무엘상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1-7장)  
왕정의 시작(9-12장)  
초대왕 사울의 통치(13-15장)  
사울의 쇠망과 다윗의 흥기(16-31장)

## 3) 신학적 주제에 의한 구조 분석

이제 신학적 주제에 의한 구조 분석의 예를 살펴보자.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를 '왕정'으로 정하고 이 주제의 역사적, 논리적 발전을 고려하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은 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무엘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를 왕정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왕정 설립의 배경(삼상1-7장)  
왕정의 설립(삼상8-12장)  
사울의 왕정(삼상13-15장)  
사울 왕정의 쇠망과 다윗의 흥기(삼상16:1-삼하5:5)  
다윗의 왕정(삼하5:6-9:12)  
다윗의 왕정(삼하10-20장)  
다윗 왕정의 반성(삼하21-24장)

# 1

##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거절

수요일

새찬송가 406 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사무엘상 25:1 ~ 13

- 1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 가니라
- 3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 4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 5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 6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 7 네게 양 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 8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 9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 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 말씀 암송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삼상25:13)



1~13절

### 나발의 거절 앞에 복수에 집중하는 다윗

다윗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식량을 찾는 일은 다윗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농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그들에게서 후원과 식량을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다윗의 부탁을 듣게 되는 '심히 부하였던' 나발이라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나발은 갈렙족속으로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발에게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어 나발은 조금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전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깊은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자기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왔던 다윗이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겼던 믿음의 선택 대신에 당장의 감정을 해소할 복수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편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



---



---

# 2

##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목요일

새찬송가 545 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곳과

### 사무엘상 25 : 14 ~ 35

14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이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아니하니라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 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 말씀 암송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삼상 25:28)



### 14-22절      아버가일이 나발의 행동을 듣고 다윗을 찾아감

아버가일은 하인들에게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 대하여 벌을 내릴 각오를 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은 분명 나발에게 선을 대했는데, 나발은 도리어 악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 나발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 23-35절      다윗에게 긍휼을 요청하는 아버가일

아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발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윗은 아버가일의 요청을 따라 복수할 계획을 취소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혈기로 복수를 행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남길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

---

---

# 3

## 나발의 죽음

금요일

새찬송가 542 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사무엘상 25 : 36 ~ 44

-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 37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 38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 39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 40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 41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 42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 43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 44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 말씀 암송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삼상 25:39)



### 36~38절 나발의 죽음

나발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흥에 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다윗의 일을 말하자 몸이 굳고 열흘 뒤에 죽게 됩니다.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그의 무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무지를 죄로 여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무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죄에 민감하여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39~44절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다윗은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 아내를 삼고자 했고, 그녀는 다윗의 뜻에 따라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자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과 지혜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4

##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토요일

새찬송가 539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사무엘상 26 : 1 ~ 12

-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 2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 4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 말씀 암송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삼상 26:11)



## 1~12절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지함

사울왕은 십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주변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는 것을 알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는 무방비 상태의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거부하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같이 말씀만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말씀의 원칙을 따르겠습니까?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5

#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주일

새찬송가 488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사무엘상 26 : 13 ~ 25

13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14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 갔었느니라

16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 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2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암송**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 34:17)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하월라 사건으리 후반부입니다.

### 13~20절 어찌하여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실을 책망하고 사울을 향하여는 다윗에 대한 핍박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아브넬이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21~25절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이 큰 일을 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윗에게 두 번씩이나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누구 바꿀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고집하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6

##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월요일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사무엘상 27:1~12

-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 2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육백 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 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더라
-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 10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겍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겍과 겐 사람의 네겍이니이다 하였더라
-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말씀 암송**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5)



## 1~12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족과 따르는 무리 육백여명을 이끌로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준 성읍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일 년 사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깊고 심오하여 사람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장 잘했던 선택과 가장 나빴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후회없는 선택을 위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

---



# 7

## 엔들의 신접한 여인

화요일

새찬송가 211 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사무엘상 28:1 ~ 14

-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
-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 6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 7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들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 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 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 10 사울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 11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 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 말씀 암송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9:31)



## 1~14절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 후에 동요하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성도의 산성이 되십니다.



두렵고 떨릴 때,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8

#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수요일

새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사무엘상 28 : 15 ~ 25

-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 16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 17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 18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 19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 20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 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 21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 22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 23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 24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 25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삼상28:17)



## 15~19절 가장한 천사에게 속지 맙시다

접신녀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낸 귀신입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하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때문에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에게 '나는 심히 곤궁하니이다'라고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궁하니이다'는 '괴롭다' '환난을 당하다' '압박하다' '에워싸이다'로서 기본 의미는 '차단하다'입니다. 이는 이웃의 도움조차 차단당한 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에 에워싸여 있는 사면초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사탄이 노린 자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닌다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 20~25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울은 자기와 그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 집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귀신을 진짜 사무엘의 영으로 착각하고,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기대하던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멸망에 대한 말을 듣자, 그는 큰 두려움의 엄습과 육체적 탈진으로 땅바닥에 길게 엎드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

---

---

# 9

##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목요일

새찬송가 302 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사무엘상 29:1~11

- 1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더라
- 2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 3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 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 5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 10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말씀 암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29:5)



### 1~2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참함으로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해 가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은 썩 열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으로 매우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사탄은 이를 잘 이용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불화한다면 이는 마귀의 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3~11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진퇴양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하여 아기스와 함께 한 기간은 '일 년 넉 달'이었습니다(27:7). 신임을 얻었고 이제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하니 이는 출전할 수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치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블레셋 다른 장수들이 의심을 하게 함으로서 출전을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위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

---

---

# 10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금요일

새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사무엘상 30 : 1 ~ 6

-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겍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 2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 암송**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30:1)



## 11-21절 화목의 사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죄인들이 자신과 화목하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과 그들 사이의 적의를 제거하며 관계를 회복시킨다(롬5:10-11; 골1:20-22 참조).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하고 인간의 응답을 촉구하는 직무를 맡기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5:20). 화목은 바울 서신(또한 신약)의 중심 주제, 곧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이 구원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이로써 그들과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다.

## 11-15절 섬김의 동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책임(10절)과 그분이 보이신 자기 희생적 헌신의 찬란한 본보기를 알고 있기에(14절) 이 모든 일을 행한다.

## 16-21절 화목의 사신

하나님만이 화목을 가능하게 하시지만(5:18),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자인 그분의 동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과 화목하라고 촉구하신다(5:20).



나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11

##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토요일

새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사무엘상 30 : 7 ~ 20

-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 9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육백 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 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 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 11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 12 그에게 무화과 멍치에서 떼낸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지라
-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 20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말씀 암송**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삼상 30:8)



## 7-15절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시글락을 비운 사이 아말렉이 침략하여 성읍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본 후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30:4-6).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삼상 30:8)' 하며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삼상 30:8)'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당시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이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400명을 거느리고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던 애굽소년을 만나 아말렉이 어디있는지 안내받으며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 16-20절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양 떼와 소 떼까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리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셨다고 믿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12 다윗의 전리품 분배

주일

새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 사무엘상 30 : 21 ~ 31

- 21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 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 23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 24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 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 27 베엘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달에 있는 자와
- 28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 29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 30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 31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말씀 암송**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삼상 30:23)



## 21-25절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무리는 그것을 '다윗의 전리품(삼상 30:20)'이라고 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지쳐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 200명도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며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삼상30:22)'며 함께 싸운 자들을 타이르며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분깃을 나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삼상30:25).

이런 다윗의 태도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 26-3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리고 다윗은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하였다며 선물을 나눴는데, 이는 그가 비록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였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불타 온 이스라엘을 헤매고 다니는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입니까?

---

---

---

# 13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월요일

새찬송가 337 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사무엘상 31 : 1 ~ 6

-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말씀 암송**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삼상 31:6)



### 1-3절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중요한 전투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사무엘상 26:10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전투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면서 사울의 가문도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 4-6절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 당하는 모욕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지만, 그가 두려워 행하지 않자 스스로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고, 무기를 든 자도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에는 허망함, 비참함,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사울이 죽음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

---



# 14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화요일

새찬송가 408 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사무엘상 31 : 6 ~ 13

-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 4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 5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말씀 암송**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 6-10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길보아 전투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전장을 누비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발견하고 머리를 베어 뱀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 10-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험하게 다룬데 반하여 야베스 주민들은 그것을 뱀산 성벽에서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돌봐 준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

---

---

## - 성경 개관 -



*Holy Bible survey*

# 고린도후서

한성훈 목사

### 1. 기록동기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 후(고전4:17 고전16:10) 그가 그 곳에 도착하기 전에 들려온 소식과 편지에, 고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교회 내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를 잠깐 동안 방문하였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으로 고린도전서를 쓴 후 고린도후서를 쓰기 이전 중간기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후13:2에 이 두 번째 방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극심한 긴장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고후12:14과 고후13:1에서는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돌아온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곧 다시 오겠다던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시키자 그를 허튼 사람으로 공박하고(고후1:15-24), 바울은 아무런 추천장도 없는 자로(고후3:1 고후4:2), 그의 말은 분명치 않고 떨어져 있을 때나 큰 소리치지 막상 대면하여서는 보잘것없는 인물이라고 혹평하였다(고후10:1,10).

또한 그는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 비하여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로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한다고 폄론하였다(고후11:7 12:13). 이에 대하여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중간 편지'를 써 보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심히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을 그만두고 디도에게 그 엄중한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여정을 자세히 의논하여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한 시기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으나 그가 오지 않으므로 바울은 매우 초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게도나에서 디도를 만나 보고를 들은 바울은 모든 걱정하는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고린도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의 정책에 굴복하여 회개할 뿐 아니라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권면의 글로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 때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파송하였는데 그들을 보낸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다.

## II. 저작 연대

고린도전서를 주후 54년이나 55년 여름 전에 썼다고 할 때 고린도후서는 그 다음 해인 55년이나 56년 가을쯤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후 얼마 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고린도로부터 전해지는 괴로운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갔다.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였을 것이다.

고후8:10과 고후9:2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진해서 1년 전부터 모금을 시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전16:1에 쓰여진 바울의 지시를 따라 모금을 시작한 지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가을에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1년 후의 새해인 55년이나 56년 가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III. 서신의 통일성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에 학자들은 본 서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10-13장과 1-9장 사이의 내용상의 불일치를 발견케 된다는 것이다. 즉 1-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와의 화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쓰는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에게 너무 과한 벌을 주지 않도록 권면한다.

반면 고후10:1에서 전혀 새로운 어조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대적자를 향하여 공격을 퍼붓는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갈 때 그들이 그가 원치 않는 상태에 있을까 걱정하며(고후12:20), 죄지은 자들에 대하여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경고하고 그 때에 가서 주께서 주신 권세로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후13:10).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10-13장은 1-9장 이전에 쓰여졌거나 혹은 전서와 후서 중간에 기록된 독립적 서신이거나 다른 서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13장이 바로 이 '눈물의 편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8-9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관한 부분을 또 다른 별개의 편지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가 하나의 통일된 서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전히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1-9장과 10-13장의 뚜렷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두 부분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쓰여졌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즉 1-9장을 쓴 후 얼마를 지나는 동안 고린도로부터 다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10-13장에 덧붙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아무튼 1-9장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쓴 것이고, 10-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과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쓴 것으로 그 어조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으로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자신의 여정 변경에 대하여 변명하고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의 역할은 화해의 직책임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화해할 것을 말한다. 이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참여 할 것을 가르친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하는 적대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고 아울러 사도로서 수난받은 사실과 신비한 체험을 부득불 자랑한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단호한 처벌이 있을 것을 말한 후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축도로 마친다.

# 15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수요일

새찬송가 421 장

내가 예수 믿고서

## 고린도후서 1:1 ~ 11

-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후 1:5)



## 1-11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와 그 교회의 개선된 환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을 뜻합니다.

(6,7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9절) '사형 선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11절)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

---

# 16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목요일

새찬송가 442 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고린도후서 1:12~24

-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 14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 17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 23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 12-14절

당시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 15-24절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전도 여정이 변경된 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부인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동역자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 17

##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금요일

새찬송가 446 장

주 음성 외에는

### 고린도후서 2:1~11

- 1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यो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 4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 6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말씀 암송**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



### 1-4절

처음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전파를 위해 이미 두 번이나 방문하였지만, 두 번째 방문은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더욱 큰 불신만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슬픔과 고통의 방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 5-11절

바울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참목적은 사랑과 용서가 전제된 회개와 연단을 통한 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완수와 건덕에 대한 상관관계를 적어 봅시다.

---

---

---

# 18 그리스도의 향기니

토요일

새찬송가 440 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고린도후서 2:12~17

-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  
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  
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  
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 암송**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5)



## 12-14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12-13절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주어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그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통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 교회안에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듣게 됩니다.

## 15-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는 번제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의를 일으키는 사망의 냄새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살고 있습니까?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19 새언약의 일꾼

주일

새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고린도후서 3:1 ~ 11

-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후3:3)



### 1-3절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천장을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추천서는 하나의 관행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천서를 이용하여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사도직을 충분히 변호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바로 그리스도안에서 회심하여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위조하거나 꾸며 낼 수 없는 사역의 열매이며 그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입니다.

### 4-11절 새언약의 일꾼

4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옛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인 지금 형식적이고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확증에 의한 영적 증거가 필요함을 밝힙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옛언약인 율법에 속한자들이었습니다. 옛언약은 죄를 인식하여 정죄하는 일시적 영광이지만 새언약은 그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며 더욱 빛나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옛언약인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새언약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새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

---



# 20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월요일

새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고린도후서 3:12~18

-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3:18)



## 12-13절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수건을 쓰고 온 사건을 전합니다(출34:29-35)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가리는데 이는 율법의 폐쇄성과 일시성을 보여줍니다. 첫언약의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14-7절 그 수건은 그리스도안에 사라집니다.

참된 언약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새언약과 예수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를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수건은 오직 주께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수건이 벗겨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여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버릴 수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

---

---

# 21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화요일

새찬송가 336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 고린도후서 4:1~6

-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 암송**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6)



### 1-2절 사역에 대한 자세

바울은 기본 사역에 대한 자세 3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둘째는 은밀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충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역 태도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 3-4절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쉽고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태도를 가지고 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

---

# 22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수요일

새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 고린도후서 4:7~15

-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8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 7절

질그릇(하나님이 복음을 맡긴 사람{살전2:4})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거의 없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 안에 값비싼 보물을 담을 수 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을 깎아내리지 않지만, 복음의 빛을 지닌 사람이 보이는 상대적인 보잘것없음과 사소함을 복음 자체의 헤아릴 수 없이 큰 가치와 아름다움과 대조한다.

## 10-11절

바울이 자신의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죽음'(10절)은 그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11절)을 의미한다. 그는 끊임없이 위험에 직면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12절

바울은 사실상 '나는 너희를 위해 언제나 육체적인 죽음에 노출된다(15절). 그 결과 너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한다. 그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 사이의 연관성이 그가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는 이 위로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1:4).

## 13-14절

바울은 시편 기자처럼 믿음이 침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시116:10)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을 참고 견딘다(8-12절).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23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목요일

새찬송가 321 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고린도후서 4:16~5:10

-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 암송**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후5:8)



## 16-18절 고난을 통한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16절)라는 구절은 4:1, 14-15절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①그는 하나님께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이 목회자로 위임을 받았다(1절). ②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다(14절). ③그가 당면한 책무는 고린도인들의 영적 복락과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는 것이다(15절). 여기서 그는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인다. 그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17절; 또한 롬8:18절 참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원한 영광'(17절)을 받을 것이다.

## 5장 1-10절 새로운 몸을 기다림

바울은 죽음과의 극적인 대면(1:8-11), 계속되는 고난(4:8-12; 11:23-29), 점진적인 육신의 약해짐(4:16)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그는 죽음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세 가지 원천을 예시한다. ①그들은 반드시 천상의 몸을 소유할 것이다(1-2절). ②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부활의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4-5절). ③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8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24 화목하게 하는 직분

금요일

새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고린도후서 5:11~21

-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 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암송**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 11-21절 화목의 사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죄인들이 자신과 화목하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과 그들 사이의 적의를 제거하며 관계를 회복시킨다(롬5:10-11; 골1:20-22 참조).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하고 인간의 응답을 촉구하는 직무를 맡기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5:20). 화목은 바울 서신(또한 신약)의 중심 주제, 곧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이 구원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이로써 그들과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을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다.

## 11-15절 섬김의 동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책임(10절)과 그분이 보이신 자기 희생적 헌신의 찬란한 본보기를 알고 있기에(14절) 이 모든 일을 행한다.

## 16-21절 화목의 사신

하나님만이 화목을 가능하게 하시지만(5:18),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자인 그분의 동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과 화목하라고 촉구하신다(5:20).



나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25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토요일

새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고린도후서 6:1 ~ 13

-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 암송**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10)



## 1-13절 바울의 고난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과 그에 대한 인간적인 질시 때문에, 그에게 다양한 형태의 고발이 제기된 것 같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열거함으로써(4:8-12; 11:23-29; 12:10 참조), 고린도 신자들이 그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5:12). 고린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5:20)이자 고난을 겪는 참된 사도인 바울의 자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사용할 수 있다. 6:4-10절은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열린 자세와 서로 간의 따뜻한 관계를 열정적으로 당부(11-13절)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에 있었던 그들이 바울이 겪는 온갖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감동받지 않겠으며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11-13절 고린도인들이여

바울은 감정적으로 깊이 격동되었을 때만 독자들의 이름을 부른다(갈3:1; 빌4:15 참조). 그는 자신이 회심으로 이끈 사람들과 따뜻하고 개방적인 가족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그 관계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26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주일

새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고린도후서 6:14~7:1

-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 암송**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1)



## 6:14-7:1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하다'는 것은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표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미혹하고 있었기에 이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그리스도와 어둠의 대표가 되는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비유하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27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일요일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고린도후서 7:2~16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9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3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7:10)



## 2-4절 바울의 호소

사명을 붙들고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이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음을 결백하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 5-16절 근심으로 인한 기쁨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힘들었으나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으나 그것은 잠시고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며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며 고린도교인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

---

---

# 28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화요일

새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 고린도후서 8:1 ~ 15

-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 11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15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후 8:7)



### 1-3절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모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가난 속에서 힘에 겨울 정도의 헌금을 통해 구제 연보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6-15절 고린도교인들의 연보를 위한 권면

이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교인들이 시작한 연보를 성취하도록 권면합니다.

고린도교인들의 믿음의 열정이 연보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라며, 또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이 자 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고 말합니다. 또 연보는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귀한 나눔으로 출애굽기16장18절을 인용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연보의 원리가 일치함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권면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항상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

---

---

# 29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수요일

새찬송가 490 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 고린도후서 8:16~24

-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17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 18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 19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 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 22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 암송**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고후8:17~19)

# 30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요일

새찬송가 540 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고린도후서 9:1 ~ 15

-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찍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 4 혹 마게도나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 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 9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 암송**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 1~15절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의 연보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구제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7절). 그리고 이와 같은 연보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견지할 수 있도록 '파종의 비유'를 들고(6절), 또한 시편 112:9을 인용하고 있습니다(9절). 그 가운데 '파종의 비유'의 요지는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바친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연보를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용한 112:9의 요지는 자발적인 선행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종의 비유'나 시편 112:9의 인용은 다같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바울은 자발적인 구제 연보의 유익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10-15절)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 둘째,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화를 지닐 수 있게 함. 셋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있던 반목을 깨뜨리고 형제애와 참된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헌금이나 헌신함에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



---



---

# 31

##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금요일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고린도후서 10:1~11

- 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 2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 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말씀 암송**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고후10:4)





## 1~11절 바울의 변론

본문이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적 측면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변호했던 본서 본론의 전반부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거스르는 적대자들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강력에 기인함을 밝히고 바울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비난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면서 사도적 권위에 입각하여 그들을 권징할 것을 강력히 표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자랑하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함이 되어 있습니까?

---

---

---



# 1

#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토요일

새찬송가 546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고린도후서 10:12~18

-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 13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 16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 암송**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후10:17)



## 12~18절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며 자신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바울은 적대자들의 자화자찬이 분량 밖의 자랑임을 언급하였습니다(12절). 즉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처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레스틴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고린도 교회를 와해 시키려는 완악한 저의가 담긴 거짓 사도들의 교만한 자랑을 폭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남의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그가 참 사도임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랑은 유한한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



---



---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1. 12.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정재형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매일 만나는 말씀으로 떠나는 안내서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세요.

